

환율에 꺾인 삼양식품 주가… 불닭 해외 성장성은 ‘여전’

환율 부담에 주가 고점 대비 28% ↓
해외 호황… 분기 최대 실적 기대
중국 자싱공장 내년 초 가동 예정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삼양식품의 해외 성장성에 관심이 쏠린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주가는 고점에서 크게 밀렸지만, 증권가는 해외 판매 증가와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실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의 환율 부담을 판매량 증가와 비용 관리로 얼마나 상쇄할지가 관건이다.

28일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보다 5.21% 오른 119만2000원에 마감했다. 이틀 연속 반등했지만 지난해 9월 11일 장중 사상 최고가(166만5000원)보다 28.41%, 52주 최고가(156만5000원)보다 23.83% 낮다.

주가 조정에도 최근 보고서를 낸 7개 증권사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신한투자증권 175만원, 한화투자증권 180만원, 한국투자-키움증권 각각 185만원, 다올투자-현대차증권 각각 190만원, 유인타증권 200만원이다.

◆ 환율에 흔들린 주가…내년 실적 전망은 유지

최근 주가를 누른 요인으로는 원화 강세가 꼽힌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같은 물량을 판매하더라도 환율이 하락하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면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이익이 줄어 들 수 있어서다.

삼양식품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품 제조·판매 부문의 수출액은 1조 2308억4000만원이다. 해당 부문 매출 1조 4377억9800만원의 약 85.6%를 차지한다. 면·스낵뿐 아니라 소스·조미소제도 수출이 내수를 크게 웃돌았다. 소스·조미소제 제품 매출 533억8100만원 가운데 수출은 367억3600만원으로 약 68.8%였다.

다만 증권가는 환율 하락이 해외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해외 판매가격이 현지 통화로 책정돼 원화 강세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직접 바꾸지는 않으며, 영향은 주로 원화 환산 매출과 수익성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적 전망의 조정 폭도 주가 하락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화투자증권이 제시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847억원으로 한 달 전 1877억원보다 1.6% 낮아졌다. 앞서 제시됐던 1865억원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937억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전날 종가 기준 내년 예상 실적 대비 주가수익비율(PER)이 8월 말 고점 당시 16.6배에서 12.0배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해외 판매 확대와 비용 통제가 환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올투자증권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8055억원, 1798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4%, 37.4% 증가한 규모다. 팜유와 운임 부담에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절해 영업이익률 22.3%를 기록했을 것으로 봤다.

◆ 中 현지 생산으로 美·유럽 공급 확대

중장기 성장의 핵심은 해외 수요에 대응할 생산능력 확충이다. 내년 초 가동 예정인 중국 자싱공장은 연간 11억300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반기보고서에는 해당 공장 투자가 약 2072억원 규모의 8개 생산라인 설비 투자로 기재돼 있다.

중국 현지 생산이 시작되면 국내 공장에서 담당하던 중국 수출 물량을 옮길 수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국내 생산 여력을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미국과 유럽에 배분하는 구조다. 중국 현지 생산에 따른 물류비 절감과 밀양2공장 가동률 상승도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한화투자증권은 앞서 내년 자싱공장의

평균 가동률을 50%로 가정하고 미국과 유럽 판매량이 올해보다 각각 55.2%, 87.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매출액 전망치는 올해보다 28.1% 늘어난 3조9552억원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전가 능력도 주목받는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이 2022년과 2025년 10월 해외 가격을 약 10%씩 올렸지만 판매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기준 미국 라면 시장의 단가가 2025년 8% 오르는 동안 삼양식품의 소매 판매액은 38%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따르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대가 실적에 이어지는 속도는 확인해야 한다. 중국 공장의 초기 가동률과 국내 공장의 미국·유럽 추가 출고 시점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방어도 필요하다.

한화투자증권은 소매 가격과 에너지·운반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가격 인상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둔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가운데, 향후 가격 전가와 비용 통제의 효과를 실제 실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금융당국, 고위험 상품 현금 이벤트 제한

금감원·금투협, 내년 1월 1일 시행
상금 노린 반복 매매·과도한 거래 차단

금융당국이 거래금액이나 횟수에 따라 현금·상품권을 지급하는 증권사 이벤트를 금지한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금성 이벤트도 제한한다. 상금을 노린 반복 매매와 과도한 위험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공 한도와 내부통제 기준 등은 협회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금성 혜택이 과당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실제 한 증권사는 ETF 하루 거래대금이 500억원 이상이면 500만원, 200억원 이

상이면 16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좌당 가격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작은 특정 ETF에 거래가 집중됐다.

이벤트에 참여한 개인투자자 2명의 거래대금은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상금은 각각 3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이었다. 이벤트 기간 해당 ETF 전체 거래대금 97조 5000억원 가운데 이 증권사를 통한 거래는 42조8000억원으로 43.9%를 차지했다.

해당 증권사가 이벤트로 지출한 금액은 약 60억원인 반면, ETF 거래로 거둔 위탁 매매 수수료는 약 514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 연동 이벤트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의 거래가 늘수록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투자자는 거래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상금을 받기 위한 반복 매매가 시장 거래량을 왜곡하고 업계 전반의 과도한 경쟁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에 연

동해 현금·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도 제한한다. 대상은 레버리지·인버스·상장지수 상품(ETP), 장내의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이다. 이벤트의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을 이수한 투자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신용거래 신규·우량 고객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증권사 자체 매매수수료나 이자의 할인·면제는 유지한다. 거래 횟수·금액과 무관한 일반적인 이벤트나 투자 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통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살리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1월 중 협회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개정을 마치고 증권사별 내규 반영과 업무 절차 변경 등을 거쳐 시행한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자체 토큰화 기술로 디지털 채권 발행

만기 6개월 달러화 변동금리부 상품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인 국내 금융사 해외법인 최초로 자체 개발한 토큰화 시스템을 활용해 달러화 디지털 채권을 홍콩 현지에서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만기 6개월의 달러화 변동금리부 상품이다. 발행에는 솔라나와 이

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총 1250만 달러가 판매됐다.

디지털 채권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의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한 상품이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확인할 수 있고, 이자 지급과 만기 상황을 자동화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결제·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상품 기획부터 토큰 발행과 결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자체 기술과 운영 역량을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토큰화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이지스운용, 증권부문 대표에 서성용 선임

멀티에셋 운용 전문가 발탁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식과 대체투자 경험을 두루 갖춘 서성용 헤지펀드운용파트장을 증권부문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절대수익형 펀드 육성에 나선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성용 헤지펀드운용파트장(사진)을 증권부문 대표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대표는 다음 달 1일 취임한다.

서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에서 주식형 펀드를 운용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주식과 실물 자산, 사모투자펀드(PEF), 벤처캐피탈(VC) 투자를 담당했다. 이후 코람코자산운용에서 멀티에셋운용팀을 이끌었으며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에 합류했다.



합류 후에는 멀티에셋투자파트(현 헤지펀드운용파트)를 맡아 주식·채권·공모주·메자닌·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 라인업을

구축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누적 펀드 설정 규모를 6300억원대로 확대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증권부문의 핵심 전략으로 ‘멀티전략 절대수익’을 제시했다. 시장성 자산과 비시장성 자산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마케팅 인력을 확충해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 패밀리오피스 대상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권투자파트는 국내외 채권형 자산을 활용한 투자 솔루션을 이어간다. /김아영 기자 aykim@

거래소, 부산 독거노인 21가구 집수리 완료

‘KRX 실버안전 하우스’ 완공 전달식

한국거래소가 부산지역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부산지역 독거노인 21가구의 집수리를 마치고 ‘KRX 실버안전 하우스’ 완공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성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과 황순길 부산시사회복지국장, 서보경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집수리가 완료된 가정을 방문했다.

KRX 실버안전 하우스는 장애나 질병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긴 고위험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



(왼쪽부터)서보경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과 어르신, 황순길 부산시청 사회복지국장, 정성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이 26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집수리 완공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는 사업이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부터 낙상과 화재 등 주거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신하은 기자 godhe@